

파키스탄 정권 교체의 배경과 시사점

백종훈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jhpek@kiep.go.kr, 044-414-1323)

남유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yoojin@kiep.go.kr, 044-414-1330)



차 례

1. 파키스탄 정권 교체의 과정과 의미
2. 주요 배경
3. 시사점과 전망

주요 내용

- ▶ 2022년 4월 9일 국회의 총리 불신임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파키스탄의 임란 칸(Imran Khan)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났으며,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가 신임 총리로 선출됨.
 - 2022년 2월에 상정된 불신임안은 의회 해산 및 대법원 판결 등으로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4월 9일 국회 투표를 통해 총리 불신임안이 가결됨.
 - 중도우파 정당인 PML-N(파키스탄 무슬림연맹)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편잡주 총리를 세 차례 역임했으며, 편잡주 부호이자 유력 정치가문인 샤리프 가문 출신으로, 과거 총리를 세 차례 지낸 나와즈 샤리프의 동생이기도 함.
- ▶ [정치적 배경] 총리-군부 간 갈등과 임란 칸 총리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정권 교체의 요인으로 작용함.
 - 임란 칸 총리는 파키스탄 핵심 실권세력인 군부와 외교노선 등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상호 갈등관계는 의회의 총리 불신임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경제정책 실패 등 총리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은 지지도 하락으로 나타났으며, 연립정부 내 갈등이 연정 이탈로 이어지며 총리 불신임 추진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함.
- ▶ [경제적 배경] 내수·저개발 국가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파키스탄의 펀더멘털이 최근 더욱 악화되고, 대외부채 증가 및 통화가치 하락 등 대외경제 여건도 대폭 악화됨.
 - 임란 칸 총리 집권 기간 중 파키스탄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특히 높은 수준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지속됨.
 - 대외의존도가 높고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파키스탄은 최근 대외부채 증가 및 통화가치 하락 등의 문제에 직면함.
- ▶ 임란 칸 총리의 실각에는 최근 파키스탄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정권 교체 과정에서 파키스탄 정치체제의 특징과 군부의 지속적인 정치적 영향력이 두드러졌음.
- ▶ 신임 파키스탄 총리는 파키스탄 경제위기 해소 및 정치 안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임.
 - 샤리프 총리는 대외 경제지원 모색 등을 통해 현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됨.
- ▶ 파키스탄의 경제상황이 최근 악화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정부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파키스탄과의 안정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 파키스탄 정권 교체의 과정과 의미

- 2022년 4월 9일 국회의 총리 불신임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파키스탄의 임란 칸(Imran Khan)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났으며,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가 신임 총리로 선출됨.
- 1947년 파키스탄 독립 이후 임기를 마친 총리는 한 명도 없었으며, 그중 임란 칸은 의회의 불신임 투표¹⁾로 해임된 첫 번째 총리임.
- 2022년 4월 11일 파키스탄의 23번째 새 총리로 선출된 셰바즈 샤리프는 2023년으로 예상되는 차기 총선까지 총리직을 수행할 예정임.²⁾
- 국회 내 임란 칸 불신임 결의안은 주요 야당인 파키스탄 무슬림연맹(이하 PML-N)과 파키스탄 인민당(이하 PPP)의 주도하에 이루어짐.
- 2022년 4월 9일 투표를 통해 임란 칸 총리가 축출된 이후 지지자들이 반대시위를 진행했으며, 일부 시위에 임란 칸이 참석함.³⁾
 - 임란 칸 총리와 파키스탄 정의당(이하 PTI) 및 지지자들은 외세가 의회 불신임 투표에 개입했다고 주장함.⁴⁾

글상자 1. 파키스탄 개황

- 남아시아에 위치한 파키스탄은 동쪽은 인도, 북서쪽은 아프가니스탄, 서쪽은 이란, 북동쪽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에 위치함.
- 인구의 97%가 국교인 이슬람교이며, 기타 종교로는 힌두교, 기독교 등이 있음.
- 파키스탄의 정치체제는 대통령이 국가의 수장이며, 총리가 정부의 수장인 내각책임제임.
 - 대통령은 간접선거제도⁵⁾를 통해 선출되며, 총리는 하원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임기는 모두 5년임.
 - 의회는 양원제이며, 의석수는 총 342석이고 정족수는 172명임.
- 파키스탄 인구는 약 2억 2천만 명으로 세계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2020년 기준 GDP는 2,637억 달러, 1인당 GDP는 1,193달러 수준이고, 경제성장률은 2019년 1.1%, 2020년 -0.9%를 기록함.⁶⁾

- 2022년 2월 불신임안이 상정된 이후, 4월 9일 국회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가결됨.

- 2022년 2월 7일 야당인 PML-N과 PPP는 임란 칸 총리에 대한 불신임 동의를 공식적으로 논의했으며,⁷⁾

1) 하원의원 342명 가운데 174명이 불신임에 찬성함.

2) CNN(2022. 4. 13), "Who is Pakistan's new Prime Minister? Steel dynasty scion Shehbaz Sharif inherits an ailing economy amid political turmoil."

3) BBC(2022. 4. 11), "Imran Khan supporters point finger over downfall."

4) 미국 국무부 및 파키스탄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있음.

5) 연방 의회 및 주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함.

6) The World Bank Data.

7) Business Standard(2022. 4. 10), "Pakistan political crisis: Timeline of how Imran Khan was ousted."

4월 9일 과반수의 불신임 투표 결과로 임란 칸의 실각이 확정됨.

- 3월 8일 야당 의원들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투표는 4월 3일로 연기됨.
- 4월 3일 국회 부의장은 총리에 대한 불신임 발의안이 헌법 5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표결을 거부하고 의회를 해산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행동이 위헌이라고 판단해 2022년 4월 9일 불신임 투표를 결정함.
- 불신임 투표 진행 결과 임란 칸이 해임되고 4월 11일 세바즈 샤리프가 새 총리로 선출됨.

■ 임란 칸은 파키스탄 정의당(PTI)을 결성한 후 사회적 서비스 확대에 집중하며 반부패 및 족벌주의 청산을 앞세워 집권에 성공한 바 있음.

- 파키스탄의 국민 스포츠인 크리켓 국가대표 출신인 임란 칸은 지난 2018년 반부패와 족벌주의 청산을 내걸고 총리직에 선출됨.
- PTI⁸⁾는 이슬람 민족주의와 복지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으로 주거 건설 및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 확대에 집중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와 함께 정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⁹⁾

■ 중도우파 정당인 PML-N의 당대표인 세바즈 샤리프 총리는 편집주에서 주총리를 역임했으며, 편집주의 부호이자 정치적 영향력이 큰 샤리프 가문 출신임.

- 세바즈 샤리프는 인구가 가장 많은 편집주(Punjab)¹⁰⁾에서 1997년 주총리로 처음 집권하고 세 차례 역임했음.¹¹⁾
- PML-N은 1993년 전 총리인 나와즈 샤리프가 창당한 중도우파 성향의 이슬람 민주주의 정당임.

2. 주요 배경

가. 정치적 배경

■ 임란 칸 총리와 군부 간 갈등으로 인해 군부가 총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함.

- 파키스탄은 군부가 국내외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국가로, 군부는 파키스탄 집권세력과도 상호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군사외교를 중심으로 미·중 등 주요국과의 대외정책에도 관여하고 있음.¹²⁾¹³⁾

8) 임란 칸은 1996년 부토 가문(PPP)과 샤리프 가문(PML-N)의 양당체계에 반대하는 제3의 당인 파키스탄 정의운동(PTI)을 결성함.

9)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Pakistan".

10) 편집주는 파키스탄 인구의 56%를 차지함.

11) 세바즈 샤리프는 1997년, 2007년, 2013년 편집주의 총리를 역임하였으며, 그의 형인 나와즈 샤리프는 파키스탄 총리를 3번 역임하는 등 샤리프 가문은 파키스탄 정계에서 영향력이 큼.

- 임란 칸 총리는 파키스탄 핵심 실권세력 중 하나인 군부와 외교노선 등에서 차이를 표출함.
 - 임란 칸 총리는 집권 이전부터 '미국의 아프간 전쟁이 파키스탄 국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정¹⁴⁾함에 따라 집권 이후에도 대미국 외교관계의 진전은 제한적이었음.¹⁵⁾
 - 반면 군부는 군사외교·군사원조를 중심으로 미국·중국·NATO 등과 균형적인 외교관계를 추구해왔으며, 아프간 전쟁 전후로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상당한 군사원조를 받으며 협력관계를 구축해옴.¹⁶⁾
- 총리-군부 간 갈등관계는 의회의 총리 불신임 정국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한편 총리-군부 갈등은 군지도부 인선과 관련해서도 크게 대두되었는데, 대표적으로 2021년 10월 신임 정보국장(DG ISI) 임명안에 대해 양측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음.¹⁷⁾
 - 파키스탄 군부는 의회의 임란 칸 총리 불신임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였는데, 이는 지지 철회의 신호로 간주됨.¹⁸⁾

■ 경제정책 실패 등 총리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은 지지도 하락으로 나타났으며, 연정 내의 갈등요인도 표출됨.

- 내수 및 경공업 중심의 저개발 국가형 산업구조와 높은 대외의존도 등 펀더멘털이 부실한 파키스탄 경제는 임란 칸 집권 이후 더욱 침체되었음.
 - 임란 칸 총리는 연료 및 전력 보조금정책을 시행했으나 효과는 미미하였으며, 오히려 재정적자 확대 및 화폐가치 하락 등의 부작용을 야기함.¹⁹⁾
 - 2022년 2월 말 진행된 파키스탄 국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현 파키스탄 국정운영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²⁰⁾ 87%는 생필품을 구매할 여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답변함.²¹⁾
- 또한 연립정부 내 갈등요인은 일부 의원·제휴 정당의 연정 이탈로 이어지며 총리 불신임 추진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함.
 - 연정 내의 MQM-P 등 소수정당의 불만이 표출²²⁾되며 연정 이탈이 발생함으로써 연정이 붕괴됨.

12) NYT(2022. 1. 23), "Why Pakistan's Army Wants the US Back in the Region."

13) Bloomberg(2022. 4. 2), "Pakistan Seeks to Expand U.S. Relations, Army Chief Says."

14) The Guardian(2011. 9. 18), "Imran Khan: 'America is destroying Pakistan. We're using our army to kill our own people with their money'."

15) 임란 칸은 아프간 전쟁이 '미국 주도·미국의 전쟁'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한 반면, 군부는 이웃 국가인 '아프간의 전쟁'이라고 인식함에 따라 상호간 큰 간극이 발생함. Aljazeera(2022. 4. 9), "What led to leader Imran Khan's downfall in Pakistan?"

16) 2018년 미국정부는 2002년 이후로 파키스탄에 334억 달러 규모의 경제원조를 제공해왔다고 발표했는데, 이 중 군사원조가 145억 달러를 차지함. VOA(2018. 1. 4), "Questions About US Aid to Pakistan Put Focus on Military's Spending."

17) Aljazeera(2022. 3. 25), "Why is Pakistan's opposition seeking PM Imran Khan's removal?"

18) Hindustantimes(2022. 3. 19), "Imran Khan meets Bajwa as Pakistan army maintains neutrality over no-confidence vote."

19) Business Standard(2022. 3. 22), "Imran Khan's subsidies to destroy Pak's economy for next administration."

20) ANI(2022. 3. 9), "Unemployment, inflation biggest concerns during Imran Khan's tenure: Report."

21) ANI(2022. 3. 6), "Pak citizens annoyed over high inflation, complain about inability to buy household it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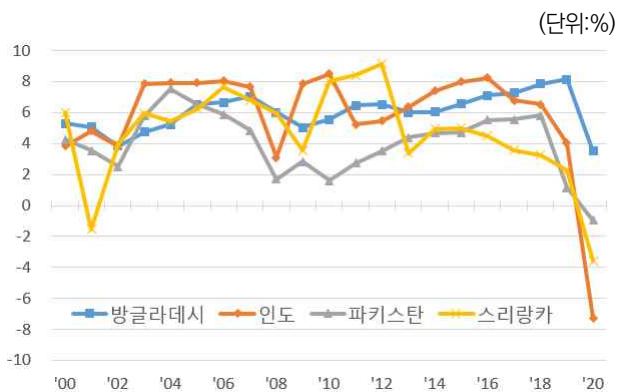
22) 내각지분 등에서 연정 내 소수정당 영향력이 크게 제한돼 불만을 야기함. Aljazeera. 9 Apr 2022. "What led to leader Imran Khan's downfall in Pakistan?"

나. 경제적 배경

■ [국내 경제적 배경] 펀더멘털이 취약한 파키스탄 경제는 임란 칸 총리 집권 기간 더욱 약화되었으며, 높은 수준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등이 지속됨.

- 전통적으로 내수·경공업 중심의 저개발 국가형 산업구조를 가진 파키스탄은 남아시아 주요국 대비 저조한 경제성장률 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 2010~18 회계연도 기간 파키스탄의 성장률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9년과 2020년 각각 1.1%, -0.9%로 대폭 감소함.
 - 최근 10년간 파키스탄은 인도, 방글라데시 등 다른 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22년 4월 IMF는 파키스탄의 2022/23 회계연도 성장률을 4.0%로 전망함.(인도 8.2%, 방글라데시 6.4%, 스리랑카 2.6%로 전망).
- 최근 수년간 높은 실업률이 지속됨.
 - 2019년 6.9%까지 상승한 파키스탄의 실업률은 2021년 6.3%로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최근 10년간 파키스탄의 실업률은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주변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함.

그림 1. 남아시아 주요국 경제성장률(2000~20)



주: 파키스탄 및 방글라데시 회계연도 기준(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 인도 회계연도 기준(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
자료 World Bank.

그림 2. 남아시아 주요국 실업률(2012~21)



자료: CEIC.

- 최근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내수경기에 중대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19년 크게 상승한 후 다소 완화된 파키스탄의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2021년 1월부터 다시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며 3월 12.7%를 기록함.
 - 2021년 11월부터 10% 이상의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음.
 - 품목별로는 교통, 식품, 외식 및 숙박 등 생활물가 상승세가 최근 수개월간 매우 높게 나타남.
 - 향후 파키스탄 CPI는 일정 기간 12~15%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제기²³⁾

표 1. 파키스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2021.3~2022.3)

(단위: %)

구분	지역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1.10	'21.11	'21.12	'22.1	'22.2	'22.3
전체 CPI	전국	9.1	11.1	10.9	9.7	8.4	8.4	9.0	9.2	11.5	12.3	13.0	12.2	12.7
	도시	8.7	11.0	10.8	9.6	8.7	8.3	9.1	9.6	12.0	12.7	13.0	11.5	11.9
	지방	9.5	11.3	10.9	9.7	8.0	8.4	8.8	8.7	10.9	11.6	12.9	13.3	13.9
CPI_식료품	도시	11.5	15.7	15.3	11.0	9.4	10.2	10.8	9.4	11.9	11.7	13.3	14.3	14.5
	지방	11.1	14.1	12.8	9.8	7.3	9.1	9.1	7.2	8.6	9.0	11.8	14.6	15.5
CPI_근원	도시	6.3	7.0	6.8	6.7	6.9	6.3	6.4	6.7	7.6	8.3	8.2	7.8	8.9
	지방	7.3	7.7	7.6	7.3	6.9	6.2	6.2	6.7	8.2	8.9	9.0	9.4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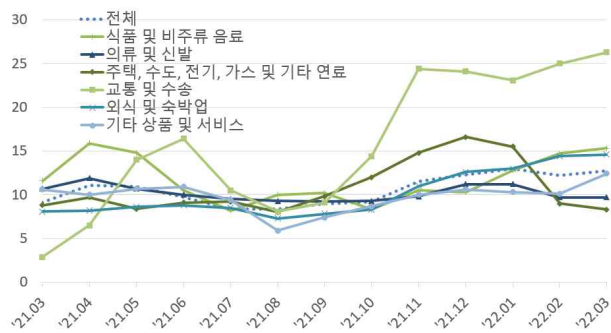
주: 1) 수치는 전년동기 대비 상승률이며, 기준연도는 2015/16 회계연도임.

2) 'CPI_근원'은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며, 'CPI_식료품'은 식료품 소비자물가 상승률임.

자료: State Bank of Pakistan, "Inflation Monitor-March 2022."

그림 3. 주요 품목별 파키스탄 소비자물가 상승률 (2021.3~2022.3)

(단위: %)



주: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이며, 기준연도는 2015/16 회계연도임.
자료: State Bank of Pakistan, "Inflation Monitor-March 2022."

그림 4. 남아시아 주요국의 물가상승률(2015~2022.3)

(단위: %)



주: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CEIC.

■ [대외경제적 배경] 대외의존도가 높고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파키스탄은 최근 대외부채 증가와 통화 가치 하락 등의 문제가 심화됨.

- 파키스탄은 대외부채 누적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등의 경제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 2021년 말 기준 파키스탄의 대외부채는 1,259억 달러로, GDP의 35.9% 수준에 해당
 - 특히 단기부채 규모와 비중이 최근 크게 증가해 2021년 말 178억 달러로(총 대외부채의 14%) 상승²⁴⁾
 - 파키스탄의 대외부채/GDP 추이는 2017년 24.8%에서 2021년 35.9%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20% 미만을 기록 중인 인도·방글라데시 등 주변국과 대비됨.
 - 대외부채/수출액은 2020년 216.1%, 2021년 202% 등으로, 파키스탄의 부채 상환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23) Atlantic Council(대서양위원회)의 Uzair Younus 인터뷰. Business Recorder(2022. 4. 26), "Experts predict hike in inflation as Pakistan agrees to roll back fuel subsidy."

24) 단기부채의 규모 및 비중이 최근 10년간 크게 상승(2012년 말 기준 단기부채 규모 51억 달러로, 총 대외부채의 8% 차지).

로 평가할 수 있음.

- 파키스탄은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²⁵⁾ 외에도 중국·사우디·UAE 등의 우방국으로부터 상업성 차관 등 양자지원을 받고 있음.²⁶⁾²⁷⁾

표 2. 파키스탄의 총 대외부채 추이(2000~21)

(단위: 십억 달러)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증장기 (공공)	27.3	26.6	28.1	31.4	31.6	30.3	33.5	37.2	40.6	42.9	43.7	45.4	45.2	44.0	47.0	49.1	52.6	61.1	67.3	71.1	78.9	85.4
증장기 (민간)	2.6	2.1	2.0	1.6	1.5	1.0	0.9	1.2	3.2	3.3	4.5	5.8	5.6	4.8	4.7	6.1	8.6	10.9	12.1	13.6	11.8	
IMF 부채	1.8	2.0	2.3	2.4	2.1	1.7	1.7	1.7	4.6	9.0	10.3	10.0	7.7	5.1	5.0	6.4	7.2	7.7	7.3	8.1	8.9	10.9
단기 부채	1.5	1.3	1.5	1.2	1.2	1.2	1.3	2.2	1.4	1.5	4.7	3.6	5.1	6.1	7.5	8.4	9.1	14.3	13.8	16.6	15.1	17.8
총외채	33.1	32.0	33.9	36.6	36.5	34.2	37.4	42.3	49.8	56.6	63.1	64.7	63.6	60.1	64.2	68.6	75.0	91.7	99.2	107.9	116.5	125.9

주: 잔액(stock) 기준.
자료: EIU.

그림 5. 남아시아 주요국의 대외부채/수출액 추이 (200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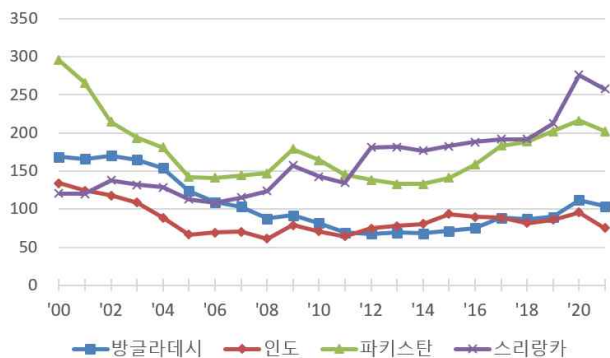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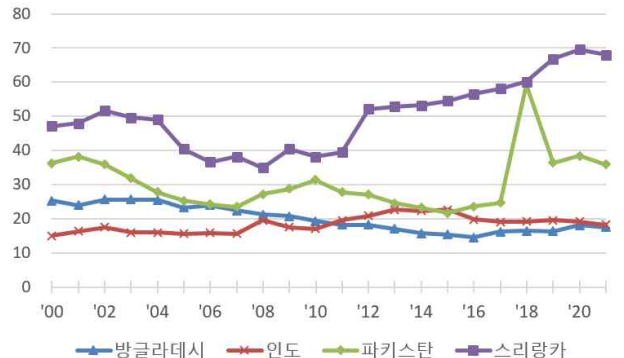


그림 6. 남아시아 주요국의 대외부채/GDP 추이 (2000~21)

(단위: %)



주: 1) 수출액은 재화, 비요소용역, 본원소득, 해외송금의 합계.
2) 대외채무는 잔액(stock) 기준.
자료: EIU.

자료: World Bank; Oxford Economics.

- 외환보유고 등 대외 지급준비자산이 대폭 감소하여 국가 지급능력이 크게 악화됨.

- 4월 16일 기준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의 외환보유고는 약 108억 9천만 달러, 총 외환보유고는 약 170억 5천만 달러이며, 2021년 하반기부터 외환보유고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2~4월 중 큰 폭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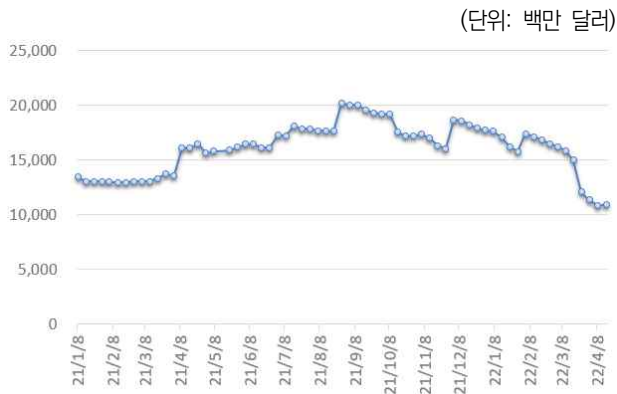
25) 파키스탄 정부는 2019년 IMF로부터 13번째 구제금융 프로그램(60억 달러 규모)을 진행했으나 구조조정 정책 등에 대한 이견으로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되었으며, 최근 샤리프 총리 취임 후 관련 협상에 돌입함.

26) The Express Tribune(2022. 4. 4), "UAE rolls over \$2 billion Pakistan debt."

27) The Economic Times(2022. 1. 30), "Cash-strapped Pakistan looks to secure USD 3-billion loan from China."

- 최근 크게 평가절하된 파키스탄 루피는 인플레이션과 대외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 달러당 파키스탄 루피 환율은 2019년 1월 말 138루피 대비 2022년 3월 말 182루피로 31.8% 상승

그림 7.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의 외환보유고 추이
(2021.1~2022.4.16)



주: 1) 중앙은행(State Bank of Pakistan) 외환보유고 기준.
2) 주 단위 집계 자료이며, 2021.1.8.~2022.4.16 기간임.
자료: State Bank of Pakistan.

그림 8. 파키스탄의 환율 추이(2000.1~2022.3)



자료: State Bank of Pakist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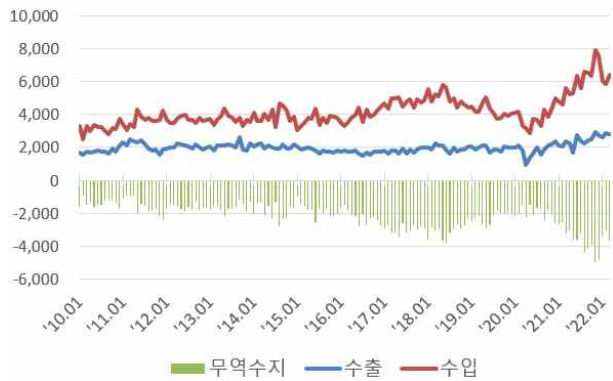
■ 한편 최근 파키스탄의 상품무역 적자가 대폭 확대되고 FDI 유입은 감소하였으며, 높은 대외의존도가 지속되고 있음.

- 만성적인 무역적자 국가인 파키스탄은 상품수입 및 FDI 유입에서 높은 대중국 의존도를 보이고 있음.
 - 파키스탄의 무역적자는 2020년 11월 21억 2천만 달러 수준에서 2021년 11월 50억 달러 수준까지 크게 악화됨(2019/20년 무역적자: 236억 달러, 2020/21년 무역적자: 311억 달러).
 - 국별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 중국, 영국, 독일 순이며,²⁸⁾ 수입은 중국, UAE, 인도네시아, 미국 순임.²⁹⁾
 - 2017/18 회계연도에 27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한 파키스탄의 FDI 유입액은 2020/21년에는 20억 달러에 그쳤으며, 업종별로는 전력, 석유·가스 등 인프라 관련 비중이 높음.
 - 국별 FDI 유입비중은 중국(1위, 37.8%), 홍콩(2위, 7.8%), 미국(3위, 7.76%), 네덜란드(4위, 5.3%), UAE(5위, 5.1%) 순으로 나타나, 외국인직접투자의 대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음(2020/21 회계연도 기준).

28) 파키스탄의 2021년 국별 수출비중(금액)은 미국 20.2%, 중국 90%, 영국 8.4%, 독일 6.5% 순임. Pakistan Bureau of Statistics, "External Trade Statistics Tab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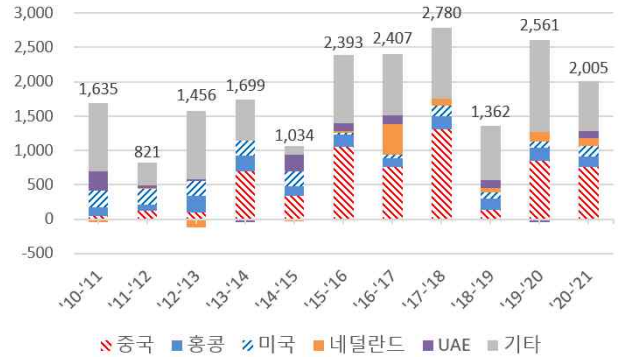
29) 2021년 국별 수입비중은 중국 26.6%, UAE 9.6%, 인도네시아 5.5%, 미국 5.1%, 사우디아라비아 4.8% 순이며, 한국은 2.6%(12위)로 집계됨. Pakistan Bureau of Statistics, "External Trade Statistics Tables."

그림 9. 파키스탄의 상품무역 추이(2010.1~2022.4.16)
(단위: 백만 달러)



주: 월별 상품교역 수치임.
자료: Pakistan Bureau of Statistics; CEIC.

그림 10. 파키스탄의 FDI 유입 추이(2010/11~2020/21)
(단위: 백만 달러)



주: 1) 파키스탄 회계연도 기준(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
2) FDI 순유입액 기준.
자료: Prime Minister Office.

3. 시사점과 전망

■ 임란 칸 총리의 실각에는 최근 파키스탄의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정권 교체 과정에서 파키스탄 정치체제의 특수성이 드러남.

- 이번 임란 칸 총리의 실각은 다원적·다층적 권력구조를 갖고 있는 파키스탄 정치체제의 불안정성과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재차 부각된 사건으로 볼 수 있음.
 -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를 갖고 있는 파키스탄은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국정을 총괄하고 있지만, 과거 수 차례의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는 등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³⁰⁾이 지속되고 있음.³¹⁾
 - 소수의 정치엘리트, 군 조직 및 파키스탄 정보부(ISI) 등 실권세력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음.³²⁾
 - 임란 칸 총리의 집권기간 군부는 안보·외교·경제 등 국가 전반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됨.³³⁾
- 또한 인플레이션 및 대외부채 등 파키스탄 경제상황의 악화가 정권 교체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 전술한 설문조사 결과, 파키스탄 국민 다수는 심각한 수준의 인플레이션 및 경제난을 겪으며 임란 칸 총리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으며, 이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연결

30) 파키스탄은 지금까지 세 차례 군사정권이 집권한 바 있으며, 민간정부 집권기에도 군부는 파키스탄 국내의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일정한 통제력을 유지해왔음.

31) Dawn(2014. 11. 23), "COVER STORY: The Army & Democracy: Military Politics in Pakistan."

32) K Mukherjee(2017), *Military governments, the ISI and political hybridity in contemporary Pakistan: from independence to Musharraf.*

33) Foreign Policy(2022. 4. 25), "Pakistan's Military Ends Its Experiment With Hybrid Democracy."

■ 신임 샤리프 총리는 경제위기 극복·국내외 정치적 갈등의 봉합 등 막중한 현안에 직면함.

- 신임 총리의 최우선 국정 현안은 심각한 인플레이션·대외부채 등 현재 파키스탄 경제위기의 극복임.
 -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파키스탄 경제는 매우 취약한 상황임.
 - 특히 최근 수개월간 대폭 축소된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의 외환보유고는 대외교역 및 대외부채 상환 등과 관련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³⁴⁾
 - 샤리프 총리는 취임 후 연설에서 현상황을 “전시 내각”으로 비유하며, 빈곤, 실업 및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함을 강조
- 정권 교체 이후 고조되고 있는 국내 정치적 갈등 상황의 해결도 신임 총리가 직면한 중대 현안임.
 - 정권 교체 이후 전임 총리를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가 파키스탄 곳곳에서 발생
 - 특히 임란 칸 총리가 일부 시위에 참여해 정권 교체 관련 미국 음모론을 내세워 ‘자유’와 ‘자주권’을 호소하며 지지시위를 독려하고 있어, 국내 정치갈등이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³⁵⁾
 - 한편 4월 26일 파키스탄 남부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는 파키스탄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음.³⁶⁾
- 한편 신임 총리는 러-우크라 사태로 인한 국제적·경제적 불안정성 확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함.
 - 러-우크라 사태로 인한 국제적 긴장 고조 및 곡물·에너지 가격 상승³⁷⁾ 등 경제적 여파에 대비해야 함.

■ 샤리프 총리는 경제지원 확보 등을 통해 경제위기를 최우선적으로 타개하고자 할 것이며, 미국 등 주요국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샤리프 총리는 파키스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재개와 더불어 UAE 등 우호국으로부터의 경제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 샤리프 총리는 4월 28일 추가적인 경제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고, 파키스탄 재무장관은 IMF를 방문해 구제금융 프로그램 관련 협상을 진행 중임.³⁸⁾
 - 다만 샤리프 총리의 임기는 2023년 8월 예정된 총선까지로, 해당 기간 국정의 수행에는 상당한 제한요소가 존재할 것임.³⁹⁾
- 중도 성향의 신임 총리는 미·중 등 주요국과의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
 - 샤리프 총리는 취임 후 의회 연설에서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대중국 관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⁴⁰⁾

34) The News International(2022. 4. 15), “Forex reserves plunge to lowest since June 2020.”

35) Foreign Policy(2022. 4. 20), “Imran Khan’s Dangerous Game.”

36) 4월 26일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해 중국인 3명 등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반중 정서 및 분리주의 성향의 발루치스탄해방군(BLA)이 배후를 자처함. Indiatoday(2022. 4. 27), “Karachi bombing: Why there is huge Baloch pushback against China-Pak corridor.”

37)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파키스탄 밀수요의 70%를 공급해옴. The Express Tribune(2022. 3. 1), “With Russia-Ukraine war, inflation to rise further.”

38) IMF(2022. 4. 24), “IMF Statement on Pakistan.”

39) WSJ(2022. 4. 12), “Pakistan’s New Prime Minister Faces ‘Impossible Situation’.”

40) Pakistan Today(2022. 4. 26), “CPEC to remain top priority of the new govt: Report.”

- 경제위기 극복의 과제를 안고 있는 신임 총리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도 꾀할 전망이다.⁴¹⁾
- 차기 총선 및 신임 육군 지휘관 임명 등이 예정되어 있어 국내 정치 변동성은 여전히 상존
 - 2023년 8월로 예정된 총선과 2022년 말 임기가 종료되는 바즈와 육군참모총장의 후임 지휘관 임명은 향후 파키스탄 정치구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있는 임란 칸 총리는 차기 총선 등을 통해 정치 복귀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 정부는 파키스탄이 봉착한 경제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우리 기업의 현지시장 진출 확대 등 파키스탄과의 안정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IMF 구조조정 기간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가운데에도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현지시장 진출 및 판매 확대가 나타남바, 향후 파키스탄 경제상황이 안정화될 경우 현지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함.
 - 일본 자동차 독점 구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현지 일본차와 비교해 우수한 품질과 디자인을 인정받은 기아·현대차의 판매량이 증가했으며, 파키스탄 소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임.⁴²⁾⁴³⁾
 - 기아·현대차는 2017년부터 파키스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반조립 공장 설립을 추진함.
- 2020년 26억 달러까지 기록한 우리나라의 대파키스탄 교역규모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2016~18년 평균 교역액 12억 7천만 달러, 2019~21년 19억 천만 달러)함.⁴⁴⁾
 - 대파키스탄 교역은 지속 흑자를 기록 중이며, 2021년 수출액은 15억 5천만 달러로 수출이 수입액의 4.7배 수준임.
 - 대파키스탄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및 차량용 부품, 철강 등이며, 수입품목은 섬유 및 나프타 등임.
- 우리나라의 대파키스탄 FDI는 2010~21년 누적 기준 투자금액 2억 8천만 달러 및 법인 수 35개임.⁴⁵⁾
 - 2018년 7,500만 달러의 투자를 기록한 이후 연 4천만 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우리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파키스탄과 중장기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파키스탄은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으로 2022년 한국의 ODA 확정액은 366억 원이며, 이는 물 관리 및 보건위생(201억 원), 지역개발(19억 원), 교통(25억 원), 기타(120억 원) 등 다양한 분야에 할당되어 있음.⁴⁶⁾ KIEP

41) Aljazeera. 28 Apr 2022. "Late PM Benazir Bhutto's son is Pakistan's new foreign minister"

42) Profit by Pakistan Today, Sep.05.2021, "Can KIA be King, or do the Big 3 have another trick up their sleeve?"

43) Profit by Pakistan Today, Mar.10.2022, "Tucson Records a Massive 473% Increase as Honda and Toyota Sales Plummet"

44) IMF Data.

4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46) 관계부처합동(2022. 1. 27),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